

##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효과

이송훈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Song-Heun Lee  
Division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2일에서 8월 29일까지이며 G도 소재의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 203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의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 결과, 감성지능( $\beta=.23, p<.001$ )과 자아탄력성( $\beta=.20, p<.05$ )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F=18.71, p<.001$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에서 개발하고 적용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실습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3 college students who were in the third year of a nursing college in G province, Korea from June 12 2018 to August 29, 2018. The data was analyzed us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SS 26.0 statistical program. The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department, and these variables all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 $\beta=.23, p<.001$ ) and ego-resilience ( $\beta=.20, p<.05$ )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15% of adaptation to their clinical practice ( $F=18.71, p<.001$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a program to enha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as a way to improve the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Adaption, Clinical Practice,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 Song-Heun Lee(Chodang Univ.)

email: yeelulee@naver.com

Received September 9,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November 5,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 1. 서론

간호학은 실무학문으로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간호교육의 질관리 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 임상실습 시간을 1,00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 국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1, 2학년에 교내에서 배운 이론을 3, 4학년에 교과목별 임상실습을 통하여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임상실습 현장인 병원은 학교에서의 학생이라는 반 수동적인 입장에 비하여 더욱 능동적 자세가 요구되는 사회이다. 또한,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직업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 및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실습 시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 그러나,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임상실습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과 업무는 비단 학생 시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된다. 간호업무 상 새로운 대상자와 치료적 만남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것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신체 또는 마음의 질병을 지닌 대상자의 건강과 회복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대상자 및 의료진을 비롯한 동료와 공감하고 이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 중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3,4].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며 또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6].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노력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이나[7,8]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미루어보아 감성지능은 직업 상 다양하고 수많은 환자를 접하고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 및 임상실습 환경에서 낮은 대상자와 의료진 등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겪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심리적 자원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위기 중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 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을 재구성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적응 능력이다[11].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덜 느끼며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전략들을 사용한다[10,12].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낯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1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대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학습의 근원이 되며[16], 긍정적 적응의 결과가 아닌,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이라 하였으므로[17]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낯설은 임상실습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환경과 업무수행의 역할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임상실습에 간호대학생이 잘 적응하고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추후 간호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임상실습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8년 6월 12월부터 8월 29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자료수집 당시 임상실습 중인 학생들로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응답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대상자의 의지에 의한 자발인 참여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총 216부 중 응답이 불확실하거나 누락된 자료 및 불성실한 응답 자료 13부를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203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는 Wong & Law[18]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인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Whang[19]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9로 측정되었다.

#### 2.3.2 자아탄력성

Block & Kremen[2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Yoo & Shim[21]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한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14에서 7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 & Kremen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4로 조사되었다.

#### 2.3.3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Yi[22]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총 14문항으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환경에 적응하여 실습 기간 동안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제작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6 으며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정을 이용하였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1(1.18)세로 남학생 23명(11.3%), 여학생 180명(88.7%)이었다. 학업성적은 3.5이상 4.0미만이 105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3.0이상 3.5미만이 69명(34%)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3.0이하와 4.0이상은 각각 10명(4.9%), 19명(9.4%)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인 학생이 60.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학과 만족도에서는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각각 179명(88.2%), 177명(97.2%)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SD)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M(SD)	t/F(p)	M(SD)	t/F(p)	M(SD)	t/F(p)
Age		21.10(1.18)						
Gender	Male	23(11.3)	60.00(8.34)	.37(.541)	51.56(7.56)	.03(.851)	76.65(13.37)	8.10(.001)
	Female	180(88.7)	54.79(7.89)		46.77(7.06)		72.85(8.32)	
Academic Achievement	≤2.99 <sup>a</sup>	10(4.9)	51.60(7.76)	.84(.472)	44.10(5.56)	4.76(.000)	69.70(3.36)	1.23(.292)
	3.0 - 3.49 <sup>b</sup>	69(34.0)	55.90(7.54)		49.32(7.31)		74.45(9.77)	
	3.5 - 3.99 <sup>c</sup>	105(51.7)	55.49(8.32)		47.06(7.35)		73.23(8.96)	
	≥4.0 <sup>d</sup>	19(9.4)	54.95(9.01)		43.16(4.84)		71.21(8.72)	
Religion	None	122(60.1)	54.41(8.16)	1.33(.262)	46.65(7.41)	1.14(.331)	73.07(8.79)	.29(.883)
	Christian	39(19.2)	56.56(7.81)		48.74(5.74)		74.03(10.42)	
	Catholic	19(9.4)	57.11(8.19)		49.16(7.95)		71.84(10.09)	
	Buddhist	22(10.8)	56.82(7.89)		46.64(8.15)		74.45(7.60)	
	Others	1(5)	64		53		7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dissatisfied	3(1.5)	54.33(5.50)	.76(.543)	50.33(7.57)	1.94(.101)	83(28.16)	2.34(.063)
	Dissatisfied	21(10.3)	54.14(10.23)		45.62(8.20)		70.67(11.12)	
	Moderate	98(48.3)	54.74(7.12)		46.27(6.18)		72.20(7.08)	
	Satisfied	75(36.9)	56.67(8.82)		48.91(8.06)		74.89(9.66)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6(3.0)	54.67(6.28)	5.69(.00)	49.00(7.72)	6.58(.00)	75.00(2.68)	6.24(.00)
	Very dissatisfied <sup>a</sup>	4(2.0)	44.50(7.59)		41(4.96)		64.25(16.93)	
	Dissatisfied <sup>b</sup>	22(10.8)	52.27(6.51)		44.32(5.27)		69.45(8.84)	
	Moderate <sup>c</sup>	85(41.9)	54.20(7.76)		45.67(6.80)		72.31(7.18)	
	Satisfied <sup>d</sup>	83(40.9)	57.41(8.05)		49.51(7.31)		74.59(8.86)	
	Very Satisfied <sup>e</sup>	9(4.4)	60.33(7.39)		52.78(7.77)		83.78(13.59)	
Total(N)		203(100)						

###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55.38(8.09)점, 자아탄력성은 47.32(7.27)점, 임상실습 적응은 73.28(9.0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위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N=203)

Variable	Subgroups	M(S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motional Appraisal	14.62(2.26)	9-20
	Others' Emotional Appraisal	14.76(2.62)	8-20
	Regulator of Emotion	12.74(2.71)	6-20
	Use of Emotion	13.31(2.80)	6-20
	Total	47.32(7.27)	33-70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02(1.60)	7-15
	Vividness	6.90(1.52)	2-10
	Emotional Control	6.65(1.49)	3-10
	Curiosity	16.54(3.63)	7-25
	Optimistic Attitude	6.20(1.59)	2-10
	Total	55.38(8.09)	34-80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46.18(6.64)	24-70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감성지능은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과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하는 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성적과 학과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적응도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감성지능은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과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하는 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성적과 학과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적응도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적응 및 각 변수의 하위항목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se (N=203)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X2	Vividness	.41**	1								
X3	Emotional Control	.30**	.28**	1							
X4	Curiosity	.33**	.55**	.39**	1						
X5	Optimistic Attitude	.41**	.51**	.41**	.41**	1					
X6	Self-Emotional Appraisal	.51**	.36**	.36**	.30**	.35**	1				
X7	Others' Emotionals Appraisal	.47**	.30**	.30**	.24**	.25**	.71**	1			
X8	Regulator of Emotionals	.39**	.51**	.44**	.38**	.63**	.43**	.29**	1		
X9	Use of Emotionals	.35**	.33**	.36**	.35**	.46**	.48**	.32**	.55**	1	
X10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18**	.26**	.25**	.29**	.31**	.29**	.24**	.25**	.32**	1

\* :  $p < .005$  \*\* :  $p < .001$

Table 4. The Influencing Factor on Adapta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N=203)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46.77	4.375		10.696	.000
Emotional Intelligence	.258	.096	.231	2.704	.007
Resilience	.258	.106	.206	2.419	.016
AdjR <sup>2</sup>			.158		
F(p)			18.716(.000)		

및 임상실습적응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5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감성지능( $\beta=.40, p<.001$ )과 자아탄력성( $\beta=-.32, p<.001$ )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F=12.37, p<.001$ ) [Table 4].

## 4. 논의

간호학문에서 임상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적응 능력은 성공적인 간호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졸업 후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게 하고 취업 후 조직몰입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간호사로서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조기이직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전 단계로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55.38(8.09)점, 자아탄력성은 47.32(7.27)점, 임상실습 적응은 73.28(9.07)점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치를 구했을 때 각각 3.46(0.50)점, 3.37(0.52)점, 3.05(0.37)점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지능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3] 3.39점으로 확인

된 것과 비교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성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24]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성숙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대상자가 4년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반면 Lee & Gu[3]의 연구대상자는 3년제 간호대학생 2학년이므로 나타난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 항목별로 분석하였을 때, 자기감정 이해가 가장 높았고, 감정조절에 대한 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타인감성이해가 가장 높았고, 감정조절이 가장 낮았으며[3,25], Shin & Park의 연구에서는[26] 자기감정 이해가 가장 높았고, 감정조절이 가장 낮았다. 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감정조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간호사라는 직업이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 대상자의 건강을 목표로 하여 대상자 및 환자,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3.46점[27](Lee & Lee) 3.38점[28](Cho & Jung), 3.12점[29](Lee, Lee, & Kim)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3.37점이었으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 점수는 3.05(0.8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의[22] 3.25(0.47)점 및 Kim & Shin의 연구[30]에서  $3.21 \pm 0.51$ 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이다. 임상실습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분석이 어려우나, 5점 만점 중 3점대에 분포하는 점수가 그리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임상실습적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세 변수 모두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이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3],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8,3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세 변수 모두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심층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개인이 갖는 심리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임상실습이라는 임시적 상황에 의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나 간호학 전공이라는 근본적인 요소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임상실습 적응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Lee & Gu의 연구에서[3]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Park 등의 연구에서[4]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넷째, 감성지능( $\beta=.40, p<.001$ )과 자아탄력성( $\beta=-.32, p<.001$ )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12.37, p<.001$ ). 이는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적응의 주요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2,4,32] 및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결과를[32] 지지한다. 이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확인되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학습을 통해 강화되는 역동적 요인[25,35]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타인과 본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본인 뿐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큰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근거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에서 개발하고 적용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도 실행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가 일개 지역의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횡단조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단연구 등의 후속연구가 시행될 것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filelinkFile/%A1%DA%B0%A3%C8%A3%B1%B3%C0%B0%C0%CE%C1%F5%C6%F2%B0%A1%20%B1%E2%C1%D8%C1%FD\\_%C8%A8%C6%E4%C0%CC%C1%F6%20%B0%D4%BD%C3\(2017.3\).pdf](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filelinkFile/%A1%DA%B0%A3%C8%A3%B1%B3%C0%B0%C0%CE%C1%F5%C6%F2%B0%A1%20%B1%E2%C1%D8%C1%FD_%C8%A8%C6%E4%C0%CC%C1%F6%20%B0%D4%BD%C3(2017.3).pdf)
- [2]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3]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4] M. S. Park, C. U. Oh, H. K. Kang,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73-81,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2.073>
- [5] L. J. Song, G. H. Huang, K. Z. Peng, K. S. Law, C. S. Wong, Z. Che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eneral mental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interactions. *Intelligence*", vol. 38, no. 1, pp. 137-143. 2010. <https://doi.org/10.1016/j.intell.2009.09.003>
- [6]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https://doi.org/10.2190%2FDUGG-P24E-52WK-6CDG>
- [7] G. Benson, J. Ploeg, B. Brown, "A cross-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30, no. 1, pp. 49-53, 201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9.06.006>
- [8]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k, A. Schü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no. 8, pp. 1018-1034. 2004. DOI: <https://doi.org/10.1177%2F0146167204264762>
- [9] C. L. Gohm, G. C. Corser, D. J. Dalsky, "Emotional intelligence under stress: Useful, unnecessary, or irreleva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6, pp.1017-1028. 2005.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5.03.018>
- [10] H. N. Lee, H. J. Jeong, K. H. Lee, H.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erception,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3, pp. 701-713, 2006.
- [11] E. C. Klo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1996.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70.5.1067>
- [12]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to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96.
- [13] H. M. Ko, S. T. Hwang, J. H. Kim, "The personality Trait of Ego Resil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0, no. 3, pp. 569-581, 2001.
- [14] D. Jackson, A. Firtko, M. Edenborough,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0, no. 1, pp. 1-9. 2007.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12.x>
- [15]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 [16]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40-250, 2009.
- [17]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 543-562, 2000.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18]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9] P.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7.
- [20]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70.2.349>
- [21]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2] Y. J. Yi,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9, no. 4, pp. 593-602, 2007.

- [22] Y. J. I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Partner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8, pp. 649-664, 2019.
- [24] F. D.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pp. 319-340, 1989. <http://dx.doi.org/10.2307/249008>
- [25] M. J. Kim,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y Convergence and Application*, vol. 16, no. 3, pp. 23-32, 2018.  
DOI: <https://doi.org/10.22678/JIC.2018.16.3.023>
- [26]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36-5645,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7] S. Y. Lee, J. S. Lee,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403-412,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03>
- [28] J. A. Cho, J. S. Kin.,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87>
- [29] S. Y. Lee, J. S. Lee, Y.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401-40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5.401>
- [30] S. Y. Kim, Y. S. Shin,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9, pp. 234-24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31] J. A. Park, E. K. Lee,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293-303, 2013.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3.27.2.293>
- [32]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 [33] S. H. Park, E. K. Byun, "Effe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256-26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56>
- [34]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44/jkasne.2015.21.2.182>

이 송 흔(Lee Song Heun)

[정회원]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건강증진, 만성질환, 자가간호, 간호교육